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56호 | 발행인 : 우남희 | 발행일 : 2017년 3월 20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청년 미혼자에게 결혼이란?

I. 문제 제기

청년층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약해짐에 따라,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청년 미혼자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지난 2001년 이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3명 이하¹⁾에 머물며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
 - ▶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양육 부담과 함께 청년층의 낮은 혼인율과 만혼화 등이 거론됨.
 - ▶ 이삼식·이지혜(2014: 87)²⁾에 따르면, 2005~2013년 기간 중 20대와 30대의 유배우 출산율이 모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유배우율이 감소했기 때문임.
 - ▶ 즉, 결혼한 부부의 출산율이 낮아졌다기보다는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현상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임.
- 청년층(20~39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약해지고, 결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
 -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에는 청년층에 대한 결혼 지원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주택 마련 자금 지원과 일자리 지원 등 사회·경제적 제약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짐.
 - ▶ 하지만, 실제로는 취업자인 경우에도 결혼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남성 38.2%, 여성 57.4%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라 할지라도 결혼에 대해 적극적 의사를 갖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이삼식 외³⁾, 2015: 333~334).
 - ▶ 사회·경제적 조건을 넘어, 미혼 남녀들이 결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을 망설이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II. 청년층의 결혼 의향 실태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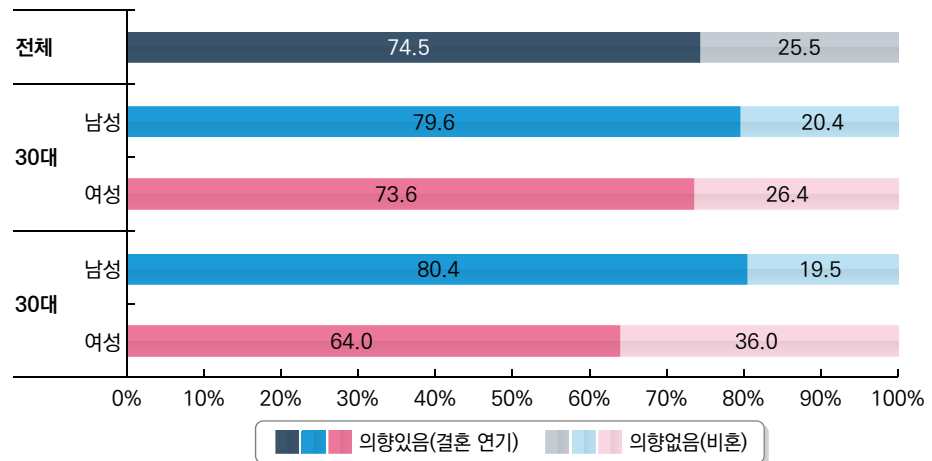
- 청년(20~39세) 미혼자의 결혼 의향을 성 및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결혼 의향이 없다(비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음.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수시과제인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최효미·유해미·김지현·김태우, 2016, 발간예정)」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
1)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합계출산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2016.11.30. 인출).
2) 이삼식·이지혜(2014). 초저출산 현상 지속의 원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이삼식·박중서·이소영·오미애·최효진·송민영(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청년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 및 실태는 상기 보고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20~39세인 미혼 남녀 1,073명(남성 536명, 여성 537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30대 남성은 결혼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30대 여성은 상대적으로 비혼 경향이 강함.

30대 남성이 결혼을 연기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크지만, 30대 여성은 독신생활을 방해받기 싫어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음.

- ▶ 남성의 경우에는 20대에 비해 30대인 경우 '결혼 의향이 있다(결혼연기)'고 응답한 비중이 약간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20대에 비해 30대에 결혼 의향이 없다(비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음.
- ▶ 30대 남성이 결혼을 연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미혼 사유)는 '소득이 적어서(20.4%)'가 가장 많고, 30대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비혼 사유)는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받기 싫어서(36.2%)'가 가장 많음⁵⁾.



[그림 1] 청년 미혼자의 성 및 연령별 결혼 의향

주: 총 1,073명(20대 남성 280명, 30대 남성 256명, 20대 여성 276명, 30대 여성 261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자료: 최효미·유해미·김지현·김태우(2016).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방안'의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

III.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생각

청년 미혼자들은 전반적으로 '결혼의 의미에 대해 긍정적이며 주체적 태도'와 '양성평등적 가족 내 성 역할분담'에 관한 문항에서 동의하는 정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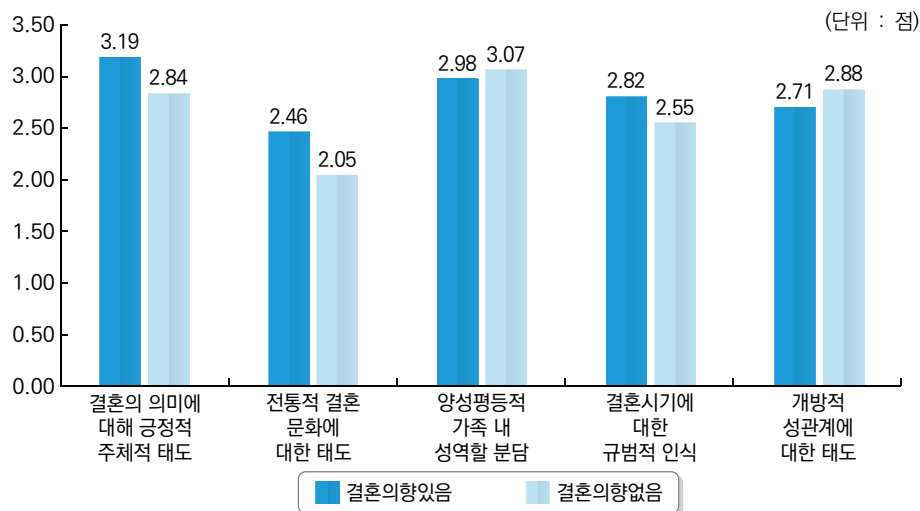
결혼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전통적 가치관에 거부감이 적은 미혼자들이 결혼 의향이 높음.

- 청년(20~39세)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총 5개 범주, 17개 항목으로 구성됨.
 - ▶ 5개 범주는 1)결혼의 의미에 대해 긍정적이며 주체적 태도, 2)전통적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 3)양성 평등적 가족 내 성역할 분담에 대한 견해, 4)결혼시기에 대한 규범적 인식, 5)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태도로 구분되며, 해당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함.
- 청년 미혼자들은 전반적으로 '결혼의 의미에 대해 긍정적이며 주체적 태도'를 질문한 문항과 '양성평등적 가족 내 성 역할분담'에 관한 문항에서 높은 동의도를 보임.
 - ▶ 반대로 가족관계 우선, 신랑의 신혼집 마련, 격식을 갖춘 결혼식, 결혼에 대한 동경 등으로 구성된 '전통적 결혼 문화'에 대한 동의도는 전반적으로 낮음.
- 미혼자들의 향후 결혼 의향에 따라 결혼에 대한 인식이 상당한 차이를 보임.
 - ▶ 향후 결혼할 의향이 있는 미혼자(결혼 연기자)의 경우 결혼에 대한 긍정적·주체적 태도(3.19점), 결혼 시기에 대한 규범적 인식(2.82점), 전통적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2.46점) 문항들에서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자에 비해 높은 동의도를 보임.
 - ▶ 반대로,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자들은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태도(2.88점), 양성 평등적 가족 내 역할 분담(3.07점)에서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자에 비해 높은 동의도를 보임.

5) 자세한 내용은 상기 보고서 pp.76~78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양성 평등적 가족 내 성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결혼 의향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고, 전체적으로 높은 동의도를 보임.

▶ 단, 결혼 후 맞벌이 필요성, 맞벌이의 경우 가사에 대한 동등한 분담 등으로 구성된 '양성 평등적 가족 내 성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결혼 의향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결혼 의향에 따른 결혼에 대한 생각 차이

주: 1) 점수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전적으로 동의함' 4점을 평균한 값으로, 각 범주별로 항목 전체 응답 점수를 합산한 후 문항수로 평균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가 높음을 의미함.

2) 내적일관성 평가를 실시하여 Cronbach's α 값이 가장 큰 경우의 묶음을 기준으로, 문항을 선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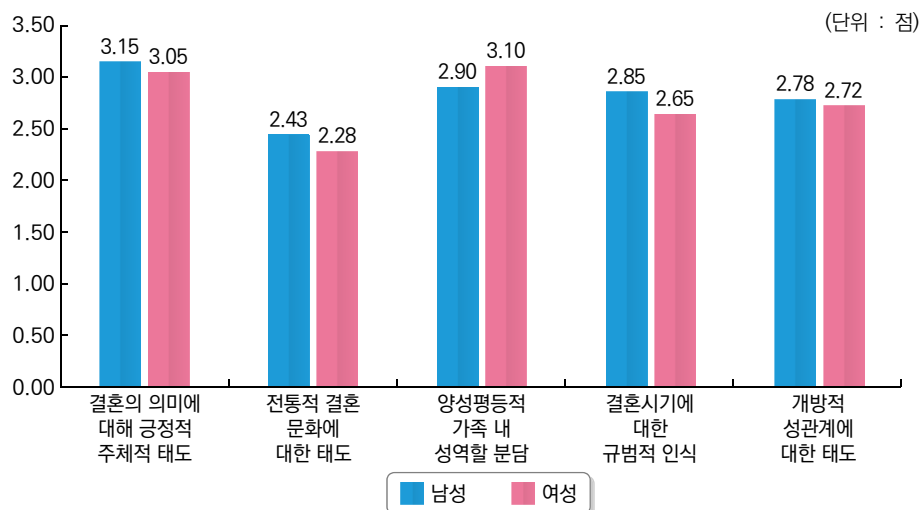
3)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 799명, 결혼의향이 없는 경우 274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자료: 최효미·유해미·김지현·김태우(2016).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방안'의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결혼에 대한 인식 문항 전반에 걸쳐 낮은 동의도를 보였으나, 양성 평등적 가족 내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여성이 더 높은 동의도를 표출함.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에 대한 인식 문항 전반에 걸쳐 동의 정도가 낮았으나, 양성 평등적 가족 내 역할 분담에 대해서만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동의도를 보임.

▶ 여성은 양성 평등적 가족 내 역할 분담에 대해 3.10점으로 높은 동의를 보인 반면, 남성은 2.90점으로 다른 문항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동의도를 보였지만 여성에 비해서는 낮은 동의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 3] 성별 결혼에 대한 생각 차이

주: 1) 점수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전적으로 동의함' 4점을 평균한 값으로, 각 범주별로 항목 전체 응답 점수를 합산한 후 문항수로 평균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가 높음을 의미함.

2) 내적일관성 평가를 실시하여 Cronbach's α 값이 가장 큰 경우의 묶음을 기준으로, 문항을 선별함.

3) 남성 536명, 여성 537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자료: 최효미·유해미·김지현·김태우(2016).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방안'의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

IV. 정책적 시사점

여성 중심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지양하고, 양성 평등적 가족 문화 정책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특히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남성의 일상적인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양성 평등적 가족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됨.
 - ▶ 미혼자의 성별과 결혼 의향에 상관없이 다수가 ‘양성 평등적 가족 내 성역할 분담’에 높은 동의도를 보임. 즉, 미혼자의 다수가 맞벌이를 희망하고 있으며, 맞벌이를 하는 경우 육아 및 가사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 청년층의 결혼을 효과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 및 제도적 개선을 넘어선 가정 내에서도 부부가 동등하게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 즉, 여성 중심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지양하고 양성 평등적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시간 근로 관행 폐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남성의 일상적인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지원 정책의 추진이 요구됨.
-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조한 인식 개선 사업의 추진
 - ▶ ‘가족 및 기혼자에 대한 태도’ 문항 분석 결과, 기혼 상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긍정적 이미지는 결혼 의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⁶⁾.
 - ▶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결혼의 의미에 대해 긍정적 혹은 주체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결혼 의향이 높았음.
 - ▶ 향후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는 가족과 자녀의 가치를 부각하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최효미 부연구위원 hmchoi@kicce.re.kr

6) 지면 관계상 청년 미혼자들이 생각하는 ‘가족 및 기혼자에 대한 태도’ 문항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기 보고서 pp.155~164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